



" 변신하는 종이 "



영상QR코드

# [종이와 소통하는 우리들]

선생님께서 긴 롤 종이를 교실 바닥에 펼쳐 놓으셨어  
"이렇게 큰 종이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한창을 망설였지  
그러다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아보며  
우리의 몸을 이용해 종이를 관찰 해 보았어



종이에서 말가루 냄새가 나  
흙냄새도 나는 것 같아  
아주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

종이를 발로 만지거나  
시뻐한 것 같아!

만발로 만지거나 부드러워  
말가루 반죽하는 것 같아!

종이 위를 걸으니까  
너무 미끄러운 걸?

종이를 구질 때도 소리가 나는걸?



"종이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

구어 태고 찢으니까  
빛소리 같기도 해!

젖은 종이를 뿌리니까  
눈이 오는 것 같아!

종이를 찢으면  
췌췌 소리가 나!



우린 종이의 냄새를 맡아보고,  
구기거나 찢을 때 나는  
다양한 소리도 들어보았지  
단지 글씨를 쓰고 그림만 그리던  
단순한 종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거야!

달씨가 있는 종이도 있어!

깨끗한 종이로만 놀이하던 우리들에게  
선생님은 글씨나 그림이 있는 신문을 주셨어~  
신문지의 잉크 냄새, 길게 찢는 모양, 던진 후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며 흰 종이와는  
다른 신문지의 특징을 알게 되었지

나는 여기 있는 글씨를  
다 읽을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사진도 있는걸?

신문지는 어떤 모양으로  
찢지일까?



우수처럼 길게 길게  
찢어지고 있어!

큼큼 신문지에서는  
발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나는 달콤한 빵 냄새!

신문지를 찢으니까  
눈을 밝는 소리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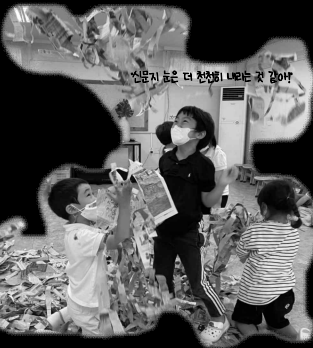


나는 칼로  
보는 소리같아~

신문지를 돌돌 마니까 찢어지지가 않아!!!!



신문지 눈을 더 천천히 내는 것 같아!





박스를 뜯으니까 끈끈지가 나오잖�

특해상자가  
왕관이 되었어

박스에 물감을 칠하니까  
도톰도톰한 느낌이 나!

“또 어떤 종이  
가 있을까?”

흰종이와 신문지로 마음껏 놀이하본 우리들은  
다양한 종이를 돌돌 말아 연결하고  
종이텐트를 만들면서 종이 놀이에  
죽 빠져들어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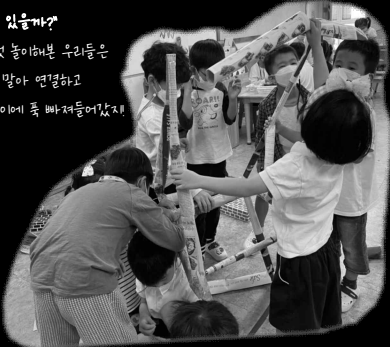


잡지를 돌돌 말면  
어떻게 될까?

종이로 매니가  
텐트를 짓는 거들잖아!

우리 종이로 텐트를  
만들어야 할까?

기둥을 연결시키면 텐트잖아!



[종이와 공감하는 우리들]



나는 잡지 속에서  
달려다니는 보고 있어

나는 꼬리는 모양이야

내가 북극에  
곰들과 함께 있어

나는 잡지 속에서 글씨를  
설명해주는 사람 같지 않아?

나는야 화장품 모델

나는 바닷가를 뛰어 놀고 있어

달라 그림이 있는 잡지에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재처럼 흙을 나는 내 모  
습 정말 많았지?

흙이를 자르고 불이며 클라주 놀이를 하던 우리는 잡지속 모델들이 되어 보았어  
흰 바탕이 아닌 글씨와 그림이 가득한 잡지속에 내 모습을 그려 모델처럼 표현해보았지.

[잡지와 만난 우리들]

# [종이박스를 활용하는 우리들]



특배상자를 가위로 자르면?  
바로 날카로운 칼이 되지!



물건이 망가지지 않게  
해주는 그물박스는  
거북이 등껍질을 닮았어!



구멍이 뚫린 종이 위에  
갈라진 박스를 끼우면  
배가 되지!



거피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종이박스는 물건이 많이 살고 있는  
아쿠아리움 같아!



전물을 담은 딱딱한 상자!  
딱딱한 시계와 닮았는 걸?

특배 상자로 무얼 만들 수 있을까?

물건이 망가지지 않게 지켜주는 아주 많은 박스가  
재활용품으로 쌓여 있는 것을 보았어!

우리 박스를 뜯어도 보고 찢어도 보고

잘라도 보며 여러 모양을 만들고 색을 입혀주었지

단순한 박스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명력을 넣어주었어

신문지론 물 위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밀으로 가라 앉지 않을까?

·원종이여 물론이 점점 퍼지고 있어

종이는 또 어떻게 변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린 그림이 담긴 종이가 비에 젖어 번지고,  
찢겨지고 또 더욱 잘게 찢어지는 모습을 보았어~  
무런 종이도 물에 젖으면 변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래서 다양한 종이를 물 속에 넣어보고,  
종이의 다양한 변신을 보게 되었어~

포크로 저으면 종이가 더 빨리 젖을까?

종이가 물에 젖으니까  
엄청 알랑알랑하고 부들부들해

포크로 저으니까 종이가 점점 작아져!!!

점점 작아지는 종이가  
미역과 같은걸?

[종이를 변신시키는 우리들]

물에 넣은 종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어

신문지도 작아졌으니까  
한지도 작아질까?

종이가 물이랑 섞여서  
맛있는 죽이 된 것 같아

[종이죽과 만난 우리들]

물이 만나오게 하려면  
종이죽을 채어 걸러야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우니까  
꼭 클레이 같아

젖은 종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접시에 있는 종이죽을  
손으로 꼭꼭 누르면  
물이 나오네!

수조에 종이를 넣어두고 하루가 지나자 종이가 더욱 작아진 것 같았어

왜 종이가 작아지게 되었을까? 작아진 종이를 거채 접시에 올려 놓고 더 잘게 찢어 보았지

젖은 종이를 용기에 담고 며칠이 지나니 물기가 없어졌어  
이런 현상을 증발이라고 하는데 물의 변화가 알만하지  
잘게 찢어진 종이로 종이 더 무엇이 될까?





**[종이는 다시 종이로 "재생종이"]**



종이속에 있던 물들은 다 어디로 간거지?



물들이 다 수증기가 되어  
날아갔다보니까  
비가 되어 다시 만났어



내 소원을 적어 나무에 걸면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클레이처럼 축축했던 종이죽이  
다시 딱딱한 종이가 되었네!



다시 만들어진 종이여  
나의 소원을 적어볼래?

**종이죽이 끈이니 또 종이가 되었어!**

물기가 완전히 살아지자 종이죽이 딱딱한 종이로 변신했어.

이렇게 우리는 재생종이를 만들게 되었지~ 우리가 종이죽 놀이를 하며 만든 재생종이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우리가 정한 놀이는 바로 우리들의 소원을 담는 거야~

물을 가득 품고 있던 종이죽이 마법처럼 딱딱한 재생종이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도 마법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 [종이로 옷을 만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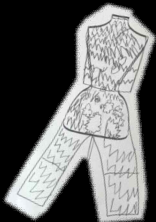
## 종이로 또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물 속에 담긴 종이 조각이 종이죽으로 변신하는 모습과 종이죽이 또 다시 종이 조각이 되어 재생종이로 쓰여지는 과정을 경험한 우리들은 점점 재미있어졌어~ 또, 종이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상상력을 펼치던 우리가 새로운 놀이를 찾아 내었지 바로 우리가 늘 입고 다니는 옷을 종이로 만들어 보는 거야! 우리들은 종이로 어떤 옷을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종이를 자르고 붙여서  
아빠옷처럼 만들고 싶어



나는 종이를 멋진 망토를  
만들고 싶어



특히처럼 꼭신축한 옷을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종이로 날개를  
만들어볼래!



나는 습자지로 줄럭 줄럭한  
드레스를 만들래~

신문지를 꺾어서 권잎처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 [종이로 만들 옷을 디자인하는 우리들]



나는 보편적인 습자지를 구해서  
주름 치마를 만들거야!



나는 설명서를 함께 잘라서  
바지 테두리를 꾸미고 있어

## "나는야 패션 디자이너"

여러 특징을 가진 옷의 디자인을 보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옷의 모양에 대해 한번 더 자세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어.

습자지, 잡지, 설명서, 신문, 색종이, 한지 등  
다양한 종이의 특징을 탐색하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옷의재질과 질감을 디자인했어



나는 멋진 사진이 있는 잡지를  
가위로 자르고 붙여서 옷을 꾸밀래!



나는 옷 그림처럼 자르려고  
잡지를 그림에 대 보았어!



나는 신문지를 함께 함께  
찢어서 바지 모양을 만들었어!



어떤 종이로 옷을 만들어볼까?

우리가 디자인한 옷을 마케팅 위에 어떤 특징을 가진 종이로 만들까?  
먼저 신문지로 탐색해본 경험을 떠올리며 나만의 옷 디자인을 만들어보았지



나는 신문을 접어서  
종이조끼를 만들었어  
신문지는 잘 접히는 종이잖아~

신문지를 잘라서 조각을 만들었는데  
너무 재미있어 왜 알까?



그냥 내린테도 작아!



나는 신문지에 구멍을 뚫어서  
팔을 끼우고 양토처럼 만들었지!



나는 옷이 딱 맞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내가 만든 옷 맛있지?  
그런데 바지는 입을 순 없아 왜 알까?



[신문지로 옷을 만드는 우리들]

도넛 만들려면 머리가 들어가야하니까  
머리 둘레를 재어보자~

머리 둘레를 재고 나면  
종이로 모자도 만들 수 있겠는 걸?

옷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신문지를 이용해 내가 입고 싶은 종이 옷을 만들어본 우리들

그런데 신문지로 만든 옷이 작거나 커서 입을 수 없어

우리 내 몸에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보았지

크기를 알려면 "자"가 필요해. 우리 미술영역에 있는 자로 사이즈를 잴어

그러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줄자를 주셨지

옷을 만들려면  
가슴 둘레는 꼭 필요하네

가슴 둘레의 가슴 둘레가  
가장 크고 가장 작을까?

어떤 숫자들이 쓰여져 있을까?

줄자가 지렁이처럼 휘어지니까  
우리 몸의 둥근 부분을 다 잴 수가 있네

'우리 몸의 둥근 부분'  
머리, 가슴, 허리, 목이 있네

[줄자를 이용하는 우리들]

# [마네킹을 탐색하는 우리들]

마네킹과 시뮬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종이옷을 만들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지 어떤 것이 필요할까?

옷가게에 갔을 때 마네킹이 있었어 우리 교실에 온 마네킹에 종이를 고정시키기 위해 풀, 테이프 등의 재료를 찾아내었어 풀과 테이프를 붙이면 종이 옷을 벗길 때 찢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핀을 이용해 환경판에 작품을 게시해 주셨던 것이 떠올랐어

핀을 이용해 종이를 마네킹에 고정시킬 수 있을까?

내가 신문지를 잡아 줄게  
핀을 꽂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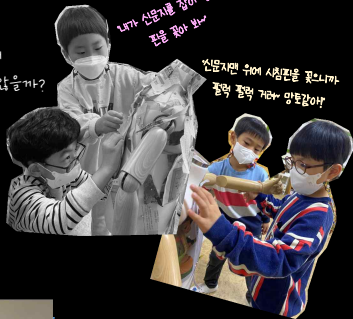
신문지엔 위에 시뮬핀을 꽂으니까  
종이 잘려서 망토잖아!

시뮬핀은 바늘보다  
더 보족한 것 같아!

마네킹이  
신문지 옷을 입어 줄게!

종이를 꽂으면  
어떤 모양이 될지 생각해볼까?

신문지 위에 시뮬핀을 꽂으니까  
신문지가 안 떨어지지?



# 우리가 디자인한 종이옷



나는 치마에 주름이  
있었으면 좋겠어!



팔 모양은 동그란  
기둥이야!



마네킹에 신문지를 대고 자를 부분과 주름을 잡을 곳, 허리 둘레 등을 연필로 표시하며 옷을 디자인하였다

나는 신문지를 알아서  
간바지를 만들고 싶어!



드레스의 어깨에는  
동그란 반팔 티 모양이 있어야



## 우리가 만들 종이옷 디자인은?

우린 신문지와 시침핀, 그리고 마네킹을 탐색해보았어

과연 우리가 옷을 만들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된다~

흰종이로 종이옷을 만들기 전, 신문지로 우리가 만들 옷의 디자인을 표현해 보았지!

## 우리들의 종이옷 완성!

여자옷과 남자옷의 디자인을 정한 우리는 우선  
신문지를 마네킹에 대고 옷을 만들어 나갔지  
우리 종이를 자르고, 접고 구기며 주름을 잡으며 종이옷의 모양새를 내었어  
우리가 함께 생각을 모아 만든 종이옷! 또 어떻게 꾸며 볼까?



우리가 만든 남자 옷은 민소매와  
긴바지를 입고 있어

드레스에는 날개 치타와  
속치타가 있어

속치타는 어떻게 꾸며 볼까?

벌리는 종이로 구겨서  
무늬를 만들었어

[흰종이로 종이옷을 만든 우리들]



# [흰종이 옷에 색을 담아볼까?]

휴지에도 색을 입힐 수 있을까?

우린 흰색 종이로 종이옷을 완성하였어

그런데 흰 종이 옷에 알록 달록 색을 입혀 끄며주고 싶었지

어떤 재료를 이용해 종이옷을 끄며 볼까?

종이 중에 가장 얇은 종이 그건 바로바로 휴지와 핸드타월이야

우린 핸드타월에 물감으로 색을 입혀 염색을 시키기로 했지

종이를 접은 대로, 핸드타월을 접고 물감을 칠한대로 다양한 색과 모양을 가지게 된

핸드타월들... 이 형형색색의 얇은 종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내꺼는 터럭기 무궁해야!

물감을 묻힌 곳을 만지니까  
내 손에도 염색이 되었어!

나는 너무 모양으로 핸드타월을  
접고 염색을 했어  
피어 어떤 모양이 생길까?



피랑색과 노란색이  
섞이니까 연두색이 되었어!



핸드타월을 둘둘 말고  
고무줄로 묶으면 어떤 무늬가 생길까?



종이가 물감으로 젖어서 부들부들해  
금방 짚어질 것 같아



**염색한 종이 옷이 옷이 되다!**

우리가 색을 입힌 핸드타월로 종이옷을 꾸며 보자.  
 여러가지 색깔로 핸드타월을 염색해 보니 색깔들이 섞이고 있었어  
 우리 색깔이 섞이는 모습과 우리가 염색한 핸드타월도 종이옷을 꾸미며  
 더욱 즐거웠고, 멋진 종이옷을 완성할 수 있었어  
 종이로 옷을 만들다니... 우리 정말 대단하지?  
 완성된 종이옷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궁금하지?



[종이옷을 꾸며 완성한 우리들]



## [변신하는 종이와 우리들]

### “변신하는 종이”

처음 하얀색의 커다란 종이를 주었을 때, 아이들은 그 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한참의 시간을 흘려 보냈다.

평상시 아이들에게 익숙했던 크기의 종이가 아니어서 아이들은 그 종으로 선뜻 무언가를 시도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며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고, 종이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아이들은 점차 종이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접기만 하는 일상적인 놀이에서 벗어나

종이의 냄새를 맡고, 손과 발로 촉감을 느껴보고, 구기고 찢고 날리는 등의 새로운 시도들이 보였다.

충분히 종이와 놀이한 아이들은 변신하는 종이에 몰입하며 주변의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소재들이 놀이에서 시작하여 탐구하고 또 탐구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표현해 나가는 아이들이 빛났던 시간이었다.